



황영성 화백 49재일을 맞아 오는 13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추모기획전(3월 31일까지)이 열린다. 전면에 보이는 작품은 '반아심경-가족이야기', 오른쪽은 대형 작품 '반아심경'.

황영성 '가족 그림'에 담긴 따뜻한 위로 메시지



'살구나무가족'

봄꽃 하면 대부분 매화, 벚꽃, 진달래, 개나리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봄이면 남도 산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꽃의 범주에 빼놓으면 서운한 꽃이 있다. 바로 살구꽃이다. 3월 중순 무렵 피어나는 살구꽃은 강렬한 화려함과과는 거리가 멀다. 꾸밈이 없는 소박한 미와도 다소 결이 다르다. 연분홍 꽃잎의 은은한 향기와 함초롬한 자태는 살구꽃이 지닌 매력이다. 여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매혹의 미, 특히 무리지어



'천수천안관음보살도'

활짝 핀 모습은 꽃구름을 연상케 한다. 고(故) 황영성 화백의 그림 '살구나무가족'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생전의 황화백은 살구꽃이 환하게 하늘을 밝힌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누구든 살구꽃 그늘 아래 있으면 봄의 이미지와 향기를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살구꽃이 분분히 흠날리는 봄날,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소, 호랑이, 새들이 경계없이 어울리는 대동세상은 '극락' 그 자체다. 황 화백의 '살구나무가족'을 비롯해 미공개 작품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 1전시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펼쳐지는 '황영성 추모기획전' (전시 오픈과 맞물려 추모제가 13일 11시 무각사 법당에서 열린다.)

그동안 시설 보수로 휴관상태였지만 재개관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황 화백의 49재일을 맞아 열리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생전 무각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황 작가를 추모하고 기리는 취지로, 우주적으로 확장된 '가족'이라는 범주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뜻도 담겨 있다. 청학 주지스님은 "생전에 베풀어주시던 공덕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

했다"며 "황 화백이 평생을 추구해온 '가족'이라는 메시지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황영성 전 조선대 명예교수는 생명공동체 '가족'을 추구했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였다. 1941년 강원도 철원 출신의 황 화백은 6·25 전쟁 무렵 남으로 내려와 광주에 정착했다. 평생 '가족'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왔던 이산의 아픔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창작의 동인이 됐다. 조선대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황 화백은 모교인 조선대미술대학에서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광주 시립미술관장을 지냈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반아심경 가족이야기' 71점을 비롯해 '살구나무가족', '붉은원숭이년', '가족이야기' (2012), '무술 年' 등 모두 81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무각사 설립전에 봉안된 '천수천안관음보살도', 수안당에 봉안된 '반아심경'도 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황 화백의 무각사와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황 화백은 생전에 '천수천안관음보살도'

와 '반아심경'을 그려 무각사에 기증할 만큼 깊은 인연을 맺었다. 평소에도 자주 들러 청학 주지스님과 담소를 나누고 창작 등과 관련 소통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무각사에서 '소의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를 연 바 있다. 당시 '소의 해'를 맞아 기획된 전시는 200호 대작부터 4호 크기의 소품까지 80여 점의 출품돼 호평을 얻었다. 이번 추모전에서 고인이 60여 년 화업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가족'이 전하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 '삼라만상 천지만물은 품은 생명공동체라는 주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가족'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지혜를 각성하게 한다.

한편 무각사는 최근 '5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청학 스님은 "지난 2월 7일은 신도님들과 함께한 금강경 독송 5000일 기도를 회향하는 뜻 깊은 날이었다. 되돌아보면 무각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부처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 모두가 금강경 독송 공덕"이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 수지독송 공덕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씀 가슴 깊이 외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황영성 추모기획전' 13일~3월31일
미공개 작 '살구나무 가족' 등 81점 전시
13일 무각사 법당서 추모제

아시아 신진 작가의 '낮선 감각'

'ACC NEXT 아시아 신진 작가전' 3월 29일까지

예술가들의 숙명인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인 상상력에서 발현된다. 작가가 기존의 창작 문법을 깨거나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구현했을 때 관객들은 '낮선 감각'을 느끼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펼쳐지는 'ACC NEXT 아시아 신진 작가전'이 그것.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등 모두 5개 팀이 참여했다. 강수지·이하영, 이주연, 이시마, 유안 왕(중국), 치우 즈옌(대만) 작가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변곡점에서 표출된 담론을 기반으로 당대를 해석하고 형상화한다. 영상을 비롯해 설치, 사운드 등 모두 16점이 출품됐으며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불안이 주요 모티프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 ACC가 첫 번째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아시아성을 모티브로 한다"며 "미래 아시아 작가를 키워내고 이들의 실험적 예술 작품을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시실에서 접하는 작품들은 개별적 경험과 지역적 맥락을 문제의식으로 확장한 미술품들이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수지·이하영 작가의 '민주주의 덕질하기'는 12·3 비상계엄을 초경화한다. 현대적 감각의 발상과 역사적 맥락을 짚은 작가의 신선한 감각으로 연결한 점이 돋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작가들은 "비상계엄 당시 광장에 응원봉을 가지거나 나온 여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덕질'이었다"며 "20·30대 여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라는 쓴 문구 등을 들고 나



강수지, 이하영 작가의 '민주주의 덕질하기'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시실에는 가상의 아이돌 '키세스'의 멤버인 민주와 주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생일카페가 구현돼 있다. 강 작가는 "시위 현장에서 접했던 팬덤 문화를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의 동인으로 상징하고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버섯'이라는 작품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에서 읽었던 사회과학서적을 붙은서적, 즉 '독버섯'이라 딱지를 붙이고 이를 읽는 젊은이들을 탄압했던 역사를 은유한 것

이다. 대만 작가 치우 즈옌은 '만델라 효과'를 연계해 작품에 투영했다. 진실이 아님에도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일컫는 만델라 효과는 집단적 오기억에서 비롯된다. 치우 즈옌은 2·28 사건 등 대만의 역사적 공백기를 기억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다뤘다.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이미지를 중첩한 거짓된 서사를 매개로 대만의 근현대사를 풀어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구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회원작품전시'에 전시된 규방공예 강좌 회원들의 작품. (광주서구문화센터 제공)

주민들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

서구문화센터 '회원작품전시'

손끝에서 완성된 취미가 전시가 되고, 작은 성취가 동네의 풍경이 된다.

광주서구문화센터(센터)가 1층 공간 '울림'에서 매월 다른 주제의 '회원작품전시'를 연다. 센터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한 회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2월에는 규방 강좌 회원들의 전시가 열린다. 전통 공예 특유의 섬세한 손맛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1월에는 캘리그래피 강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돼 개성 있는 손글씨로 다양한 문장과 감성을 전달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강좌와 연계한 전시를 매월 이어가며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회원들의 창작 결과물을 공개 전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센터가 지역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센터 관계자는 "회원작품전시는 창작의 결과물을 나누며 성취감을 느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평 죽암리 고분, 고대 마한의 흔적을 품다

전남문화재단, 보고서 발간

함평 죽암리 고분은 5-6세기 마한 수장 세력의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북동쪽이 둥근 원형, 남서쪽이 사다리꼴 모양인 전방후원형 구조로 영산강 유역 전남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 고분과 외형적 유사성을 보여 고대사와 무덤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남문화재단이 함평군 죽암리에서 진행된 전방후원형 고분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시굴조사와 2023년 본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분의 내부 구조와 매장 시설, 축조 방식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죽암리 고분의 매장 주체부는 5-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한 횡혈식 석실로 확인됐다. 석실은 장대석과 활석을 섞어 쌓은 벽체와 모퉁임 천정, 단면이 점차 줄어드는 연도 구조를 갖추고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모래 요소를 지역 환경에 맞춰 변형한 사례로 분석된다.

원형부 내부에는 방사형 점토 구획이 조성돼 계획적 성토와 구조적 안정성을 엿볼 수 있으며, 방형부에서는 회백색 점토층이 확인돼 고분 외부 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축조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전방후원분과 겹모습이 유사하면서도 축조 방식과 석실 구조에서는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마한 지역 수장 세력이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만든 고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 발간은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과 위상을 정리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국가사적 지정 검토와 마한 고분 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평 죽암리 고분 조사 후 전경. (전남문화재단 제공)